

창의성이란?



임선하 현대창의성연구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1983-1995)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현재 현대창의성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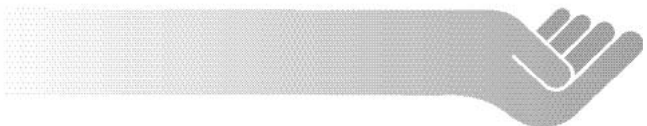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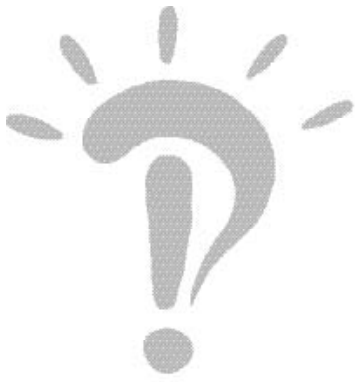
EBS - 나도 논리 박사, 창의성 교육
KBS - super TV, 얼마랑 나랑
MBC - 파워 소비자 시대(학습지 평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OUN - 창의성 교육 특집 13회
기타 수회 출연

I. 21세기의 문패, 창의성

‘창의성’ 이 시대의 화두임은 분명하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군대는 물론이고 경찰서 정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용어가 되었으니 말이다. 여기저기에서 창의성을 외치다 보니 창의성이 무엇이라는 질문은 대화의 기본 소재가 되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창의성은 어려운 말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에 이런 변화는 엄청 놀라운 것이다. 이제는 좀 더 나아가 왜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냐는 현실적인 질문까지 이어진다. 그런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의 답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창의성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진지하다. 이는 창의성을 기업과 개인의 생존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존보다 더 진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진지한 것이라고 다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것이지만, 이 질문은 깊이 살펴볼 가치가 있다.

창의성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정공법으로 접근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말문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 것처럼 창의성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답을 못거린다고 해서 창의성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창의성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을 늘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연결지어 답하는 버릇이 생겼다. 사람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바꿔 답하다보니 생각거리가 많아진다. 필자는 이렇게 답한다. “창의성은 인간 행위의 기본” 이기 때문이다. 인간 행위의 기본이 창의성이라면 이는 필경 왜 그런가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동물도 언어가 있다. 원숭이같은 영장류는 인간이 가진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동물도 사고력이 있다. 본능으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사고의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물들을 보면 이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런 질문과 답에 대한 반론을 번갈아 하다보면 철학자들의 오랜 논쟁에 합류하게 된다. 희랍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두 발을 가진 털 없는 동물’ 이라고 했다. 멋있는 말이지만 이 말 또한 털을 뽑힌 닭과 사람이 차별화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털뽑힌 닭을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말이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듯 다른 동물과 차별화될 수 없는 특성(속성) 만을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아니 시간 낭비이기 전에 묻는 답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확실한 특성 즉 결정적인 속성을 말해보고자 한다. 그 누가 보아도 틀림이 없는 확실한 특성을 결정적 속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정적 속성을 말해야 진짜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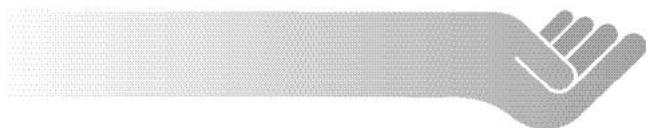
필자는 인간이 인간다운 것 즉 인간이 동물과 완전히 다른 것은 ‘의도적인 반칙’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니 더 세세한 설명을 해보자. 의도적인 반칙이라 함은 관습적으로 해오던 대로 하거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매우 다른 것을 가리킨다. 사람은 수 년 동안 늘 해오던 대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행동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이중적으로 다르게 할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예를 들어 보자. 데이트 중인 남녀가 서로 만나기로 했다. 둘 다 서로를 정말 보고 싶었다. 여자가 먼저 나와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1-2분 지나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이 때 여자는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자에게 약속 시간에 늦는 남자와는 사귄 수 없다면서 겉으로 화를 내는 표정을 한다. 이런 행동이 바로 의도적인 반칙이다. 인간만이 의도적인 반칙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은 수많은 말과 사상은 물론 도구를 만들어 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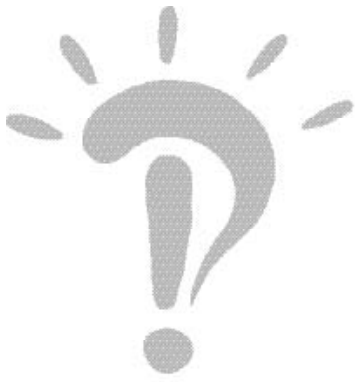
이쯤이면 우리는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렵פות한 밑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시대의 중심 키워드가 창의성이고 창의성을 알

아야 손해나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제대로 살아가려면 창의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 알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와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얼마 전까지는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이중 부담이 있다. 하지만 알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스스로 반성하면 다음부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알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창의성의 시대에 창의성을 몰라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용서받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중심적 지위를 갖는 사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하나의 결정적인 정답에 연연하지 않고 더 풍부한 아이디어를 찾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세상은 그만큼 다양해지고 재미있어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기업은 기업대로 국내 외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II. 창의성이 무엇이냐고?

이제 창의성을 정면으로 접근해 보자. 창의성을 정의하는 전문가들은 많다. 필자는 창의성을 “새로움에 이르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학술적 정의이다. 학술적 정의는 통속적이고 상식적인 정의로 전환되어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의 자체를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본다. 먼저 ‘새로움’에 주목한다. 창의성의 결정적 속성은 ‘새로움’이다.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부의 사람들이 창의성을 융통성이라고 한다거나 고정 관념의 타파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융통성이나 고정 관념 타파와 같은 특성들은 창의성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이다. 이제는 창의성이 새로움 즉 독창성에 중점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다음에 ‘개인’이 있다. 필자가 창의성과 관련하여 개인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창의적인 사고는 그 자체적으로 새로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모방에 중점을 두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겪게 될 한계 상황과도 관련된다. 모방의 대상이 없어진 상황, 즉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방 전략을 활용하는 사람은 헤쳐 나갈 길이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별자로서의 창의적인 개인은 절대적이다. 마지막으로 ‘사고 관련 특성’이 있다. 필자는 창의성을





사고의 체계성에 중점을 두는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와 같은 '틀 속의 사고' 까지 포함하는 사고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깔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고가 곧 창의성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려는 의식적인 태도도 필요하고, 관련된 지식도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직도 상당 부분 학술적인 냄새를 지울 수 없다. 어떤 대상을 학술적으로만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서 상식이 형성되어 의사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학술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학술적 수준에서 의사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창의성을 상식적 또는 통속적으로 설명하는 작업도 따라야 한다. 필자는 창의성을 '똥 것' 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알고 보니 이 말은 필자의 고향 방언이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을 알고 나면 창의성의 성격을 이해하는 말로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농부들은 농토에 씨앗을 뿌린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발육이나 논둑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린다. 똑같은 씨인데도 불구하고, 논밭에서 자라는 것과 둑에서 자라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인다. 논밭에서 자라는 씨는 물이 부족하면 말라 죽는다. 병이 오면 이겨내지 못한다. 인간의 관리를 받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둑에서 자란 씨는 그렇지 않다. 생존력이 더 강하다. 다수의 씨가 잘 짜여진 환경에서 자라면서 극한 조건에서의 생존력을 상실한 반면 일부의 씨 즉 둑에서 자란 씨는 극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총체적인 생존력을 극대화시킨다. 창의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수가 아닌 일부가 되는 똥 것 사회를 추구한다.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이 용인되는 색깔있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면 요즘들어 경영학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positioning(포지셔닝)' 과 창의성은 만나게 된다.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만의 이미지를 갖게 하는 차별화를 바탕으로 하는 포지셔닝이 바로 창의성인 것이다.

필자는 또 창의성은 '생각의 창고를 깨는 것' 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창의(創意)라는 한자를 파자(破字)하여 얻은 생각이다. 글자 創은 倉(창고)과 刀(칼)이다. 그러니까 생각(意)이 들어 있는 창고를 칼로 해체하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것이다. 한 번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해체해야 하는 것이다. 창의성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칼로 해체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창의의 순환 상태' 에 들어서게 된다. 예를 들어 사랑을 창의의 순환 상태에 대입해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사랑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생각의 창고를 해체하고 새로운 생각을 그 창고에 채우게 되면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랑도 이미 창고에 들어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랑을 채워 넣어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창의의 세계가 열리는 셈이다.

필자는 창의성은 '두 번째 생각'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첫 번째 떠올리는 생각은 같은 문화권에서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니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창의성을 두 번째 생각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생각을 말할 것이다. 첫 번째 생각은 서로 겹칠 수 있지만, 두 번째 생각 부터는 서로 차이가 나는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창의성을 다양한 말로 풀고 있다. 필자가 이렇게 창의성에 대해 다양한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창의성에 대해 말하는 필자 또한 창의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창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창의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창의의 순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III. 내 창의성

[문제] 자신이 생각하는 창의성의 의미를 쓰시오.

[문제] 창의적인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고, 그 사람의 창의적인 특성을 쓰시오.

다음호에 계속

발·특2006. 2 |

